

# 무장된 독자를 기다린다

## ‘풍속적 무의식보단 의식화된 지성’ 기대



글\_이명원문학평론가

교보문고 광화문점 출입구의 외벽에는 시대별로 베스트셀러 서적의 표지가 장정에 일목요연하게 진열되어 있다. 10년 단위로 진열되어 있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서, 나는 흔히 한 시대의 문화적 풍속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가령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초반의 베스트셀러로는 마광수 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와 오쇼 라즈니쉬의 《배꼽》이라는 명상서가 있고, 영똥해 보이기 는 하지만 학생들의 사회의식화의 초보서적이었던 《철학에세이》가 함께 진열되어 있다. 그 시절에는 참으로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분신을 거듭한 가혹한 시대적 기후였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기후와, 마광수와 오쇼 라즈니쉬로 상징되는 성적 페티시즘 및 말랑말랑한 영성주의로 대표되는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는 사실 먼 거리에 있다.

나는 한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문화적이거나 풍속적인 무의식을 강렬하게 환기시키는 표지라고 생각한다. 일상사의 풍속적 행위도 그렇지만, 책읽기로 상징되는 문화적 풍속 역시 큰 틀에서는 대중들의 무의식에 크게 의존한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마광수의 독특한 성적 페티시즘이나 오쇼 라즈니쉬의 나쁜 명상이 한물 간 것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는 자신들의 결핍된 무의식과 욕망에 대한 문화적 대체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책읽기의 사회사는 언제나 풍속사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풍속은 그것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무의식에 기반한 이 문화적 풍속조차도 사실은 어떤 의식적 전략

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출판계에 몰아닥친 돈의 물량공세, 이것의 원인이자 결과인 마케팅 중심주의, 여타의 경제 영역과 비슷해진 다국적 출판 대자본의 시장교란 행위가 오늘의 대중들의 문화적, 풍속적 무의식조차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대체로 거의 모든 베스트셀러는 목표독자로서 ‘중간층의 대중독자’를 겨냥한다. 의식의 깊이보다는 무의식의 넓이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대량으로 팔리는 대부분의 책들이 10년도 지나지 않아 들춰볼 필요를 못 느끼는 낡은 유물로 남는다. 운 좋게 스테디셀러로 남는 베스트셀러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손꼽을 만큼 이례적인 현상이다.

베스트셀러는 가령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만, 나는 반대로 독자들의 풍속적 무의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의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책읽기 풍속이 이 즈음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중들이 풍속적 향유의 한 계기로 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쨌든 놀라운 일이라고 보지만, 그러한 풍속적 무의식을 의식화된 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책읽기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다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자들이 무의식에 노출된 존재가 아니라, 지성으로 ‘무장된 독자’,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서가를 기웃거리되, 계산대에서는 먼지를 툭툭 털면서 그늘진 서가에서 뽑아낸 숨은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무장된 독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